

‘한글’ 입은 유통가

광주신세계, 한글날 맞이 한글 표기 와인 3000병 한정 판매 롯데시네마, 같은 초성 이름에 할인권...GS25, 도시락에 엮서

573돌 한글날(9일)을 맞아 유통가가 손 우리말을 내세워 고객 잡기에 나섰다. 유통업계는 한글을 활용한 한정판을 출시하는가 하면, 무료 서체를 배포하며 우리말에 대한 홍보와 의식고취에 앞장서고 있다. (주)광주신세계를 포함한 전국 신세계백화점은 ‘한글판’ 인기 와인인 3000병(1병 3만1500원) 한정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신세계는 칠레 ‘몬테스 알파 까베르네 소비뇽’을 한글로 표기한 ‘몬테스 알파 한글 와인’을 선보였다. 해당 국가의 언어를 입힌 것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이다. 손우리말 이름을 지닌 고객은 극장 할인권을 받는다. 롯데시네마는 한글날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한글대잔치’ 행사를 진행한다. 순한글 이름 고객이 영화관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면 관람료 3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명 초성에 ‘롯데시네마’와 동일한 한 자음인 ‘르, 드, 스, 니, 드’이 들어있다면 매점 상품도 3000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롯데시네마는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 할인권도 제공한다. 편의점 GS25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담은 엽서를 제작해 자사 도시락 제품에 동봉한다. GS25는 국립국어원, 국립한글박물관과 손잡고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우수함을 알리는 62종의 엽서를 제작했다. GS25가 제작한 엽서에는 순수 우리말 25종과 오남용되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단어 25종이 담겼으며, 한글의 보급과 활성화에 힘

쓴 12명의 이름과 업적도 소개했다. 순수 우리말로는 아무지도 탐스럽다는 의미의 ‘도담하다’와 깨끗하고 반지르르 윤이 나는 모양이란 뜻의 ‘합치르르’ 등이 소개됐고, 우리말로 순화한 외래어는 ‘더치페이’(각자내기),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 등이 선정됐다. 이들 문구는 그림 작가 ‘오리여인’의 삽화와 함께 엽서에 담겼다. 네이버, 넥스, 빙그레, 배달의민족 등은 한글날을 기념한 무료 서체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했다. 무료 서체 배포는 기업의 홍보와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 마케팅으로 꼽히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공모전에서 접수한 손글씨 2만5000여종에서 109종을 골라서 광학문자판독(OCR)·딥러닝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글꼴로 만들었다. 또 사용자들과 함께 만든 부리 글꼴 스티커 27종과 스티커북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빙그레 메모나체’ ‘배달의민족 을지로체’ ‘넥스Lv.1고딕’ 등은 기업의 특성을 잘 반영한 글씨체로 호응을 얻고 있다. 빙수 전문 업체 설립은 9~10일 올바른 맞춤법을 찾는 고객에 경품을 주는 SNS 행사를 진행하고, 제주항공은 11일까지 이름에 ‘스, 스, 스, 스’가 들어간 고객에게 최대 4만원 상당의 운임 할인권을 준다. 제주항공은 지난 2008년부터 한글날 앞뒤로 국제선과 국내선 등 모든 항공편 기내에서 손우리말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주)광주신세계는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 표기를 넣은 ‘몬테스 알파 한글 와인’을 3000병 한정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46.25 (+24.52)	↑ 금리(국고채 3년) 1.26 (+0.03)
↑ 코스닥 635.41 (+8.20)	↓ 환율(USD) 1193.10 (-3.50)

삼성전자 ‘깜짝 실적’

스마트폰·디스플레이 호조...3분기 영업이익 7조7000억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사업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을 냈다. 특히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는 선전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내년 초부터는 다시 ‘상승기류’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삼성전자는 올 7~9월(3분기) 연결 기준 잠정실적으로 매출 62조원, 영업이익 7조7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분기(56조1300억원)보다 10.5% 늘었으나 역대 두번째로 많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65조4600억원)보다는 5.3% 줄었다. 4분기 만에 매출 60조원대로 복귀했다. 영업이익도 사상 최고 실적을 냈던 1년 전(17조5700억원)보다 무려 56.2% 급감했으나, 전분기(6조6000억원)에

비해서는 16.7%나 늘어났다. 증권사 전망치 평균(61조529억원~7조1085억원)도 훌쩍 뛰어넘으면서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다운턴’(하락국면)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는 기대섞인 분석이 나왔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영업이익률도 12.4%로, 전분기(11.8%)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평균(24.2%)의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수익성도 다소 회복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됐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올 1~3분기에 170조5100억원의 매출과 20조53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7.6%와 57.3% 줄어든 것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

광주국세청,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접수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은 법인 사업자 9만2000명을 상대로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 17만7000명은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3%)을 부담해야 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 제공

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 신고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세 유예, 환급 금 조끼 지급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

“지역본부 3분의 1은 총무부”

기재위 국감, 한은 인력운영 지적

한국은행 지역본부 인력의 3분의 1은 일반 회사의 총무부에 해당하는 ‘관리지원업무’ 담당으로 비효율적 인력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광주·전남지역 한은 인력 가운데 관리지원업무 담당 비율은 35.2%(78명 중 27.5명)로 나타났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총 직원 59명 가운데 33.9%에 해당하는 20명이 관리지원업무를 맡고 있었다. 목포본부 관리지원인력은 총 19명 가운데 7.5명(39.4%)이었다. 이들 본부의 관리지원인력 비율은 전체 평균(36.8%·634명 중 233.5명)보다 낮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해양조 ‘역사 바로 알기’

근로정신대 피해 양금덕 할머니와 문화탐방

아베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 반일 감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해양조(대표 이사 임지선)가 광주전남 대학생들과 함께 근로정신대 강제노동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역사 바로 알기에 나섰다. 보해양조 대학생 봉사단인 젊은앞새 봉사단원들은 지난 5일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장성 백양사로 문화 탐방에 나섰다. 보해양조는 광주전남 미래를 이끌 대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이날 행사를 기획했다. 젊은앞새 봉사단원들은 양금덕 할머니를 통해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이 조선인들을 어떻게 수탈했는지 생생하게 배웠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일본과의 무역 갈등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됐다



는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열기는 높지만 그 출발점이 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며 “광주전남 대학생들이 포함된 젊은앞새 봉사단원들이 근로정신대와 그 피해자들에 관심을 기울여줘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응답하라 1980...광주은행 레트로 통장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오는 11일부터 창립51주년 기념으로 1980년대 수기통장의 디자인을 리뉴얼해 한정판 ‘레트로 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1980년대는 광주은행에 있어 특별한 시기이다. 1979년에 금남로 사옥으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1980년 35억원에 불과하던 자본금이 1989년 말에는 1000억원으로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1981년 말 총 대출은 전년 대비 421억원 늘어난 919억원으로 84.4%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1981년 3월 전산업무전담반을 구축해 1985년 5월 수신업무 온 라인화를 완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광주은행의 1980년대를 지역민과 함께 추억하기 위해 만든 레트로 통장은 당시 사용했던 레자크지 종이로

사용해 옛 통장의 느낌을 재현하고, 색상은 초록색과 주황색으로 2가지 디자인을 준비했다. 한정판으로 8만권을 제작한 레트로 통장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하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